



국내 최초, 최대의 민간 원자력 검증기관 (주)새한티이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업의 다각화 및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사명을 (주)새한검증에서 (주)새한티이피로 변경하였다.

TEP는 "Total Engineering Provider"의 약자로 원자력 성능검증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 엔지니어링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새한티이피의 영문 표기는 새한의 "S"와 "TEP"를 합친 "STEP"으로 회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국내 1호 민간 원자력기기 검증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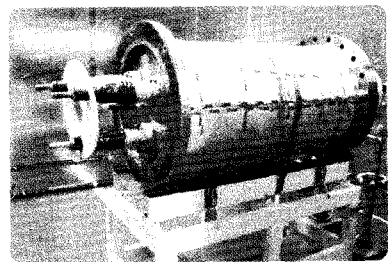
새한티이피(사장 오인석)는 1996년부터 원자력 안전성 기기에 대한 검증사업을 시작해 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1호로 원자력성능검증 사업허가를 취득했으며, 1999년 법인화 이후 꾸준한 성능검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0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원자력 성능검증 분야 벤처기업으로 지정됐으며, 2005년도에는 한국원자력기기 검증협회로부터 '제1호 원자력기기 검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지난 10여 년간 원자력 성능검증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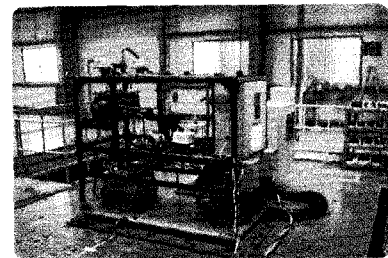
● 우수한 기술력

새한티이피는 원자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원자로를 자동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안전성 기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실증시험 및 설계해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는 약 100여종의 시험 설비와 2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120여건의 원전기기 성능검증 및 80여종의 부품검증을 수행한 결과, 국내 최대 민간검증 업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



▶ EPA Aging Test



▶ RMS 내진시험

에 원자력 검증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외의 경우 인도와 대만의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기기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 원전건설비용 절감

새한티이피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국내 원전의 성능검증을 해외기업들이 모두 진행하였지만,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외 검증기업들과 경쟁하여 현재는 외국기업들을 제치고 국내 최대의 민간원자력검증기관으로 성장했다.

또한 해외기업들이 수행하던 검증비용의 약 60~70%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검증 가격의 거품을 제거함과 동시에 원전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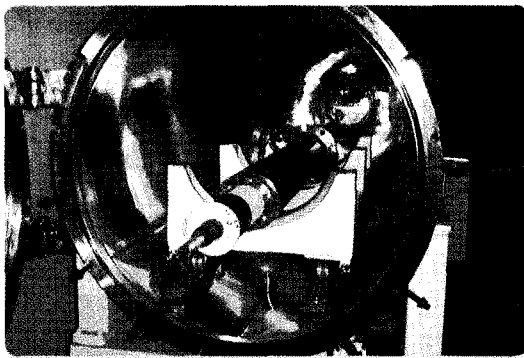
● 시험설비 보강 부품업체 등록

올해에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냉각재 상실사고(LOCA) 시험 장비를 구축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검증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원자력 부품·소재 국산화와 공급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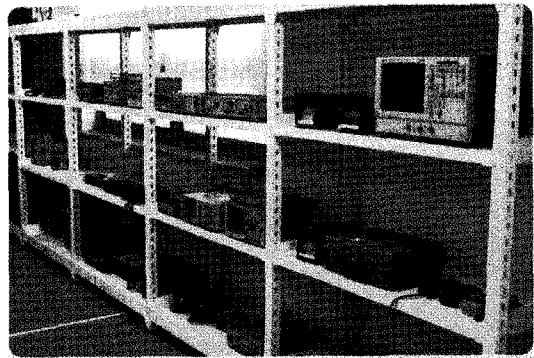
또한 일부 건설원전에 안전성 관련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부품 공급업체 등록을 올해 안에 완료함으로써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될 경우 매출은 현재보다 3~4배 증가할 것이며, 수년 내에 기업공개도 가능할 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전기협회 KEPIC인증

현재 대한전기협회의 KEPIC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며, 인증심사가 예정된 6월경에는 기기 검증 분야 국내 1호로 KEPIC 인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냉각재 상실사고 시험



▶ 각종 시험장비

● 해외 파트너십 체결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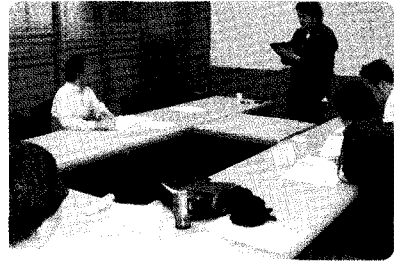
현재 캐나다 RCM사와 제휴해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UAE 원전 수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업체에서도 검증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성능검증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유수의 원자력 관련 회사와 검증 파트너로 등록하기 위한 실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능검증 업체로 등록될 경우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권 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마련

새한티이피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영어교육' 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전 가족 해외여행 가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영어교육은 전담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주 2회 아침 8시부터 1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은 지난 2008년 일본을 시작으로 연 1회 가족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여행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캄보디아 여행을 통해 직원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단합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KEA



▶ 무료 영어교육



▶ 캄보디아 여행

주요 연혁

- 1996년 새한산업(주)의 기업부설연구소 "새한산업기술원" 설립
- 1996년 대덕연구단지내 새한산업기술원 산하 "원자력개발센터" 개원
- 1996년 국내 최초 원자력검증사업 허가 취득 (과학기술부, 제1호)
- 1999년 (주)새한검증 설립
- 2000년 국내 최초 원자력성능검증 분야 벤처기업 지정
- 2001년 캐나다 RCM 과 검증사업 협력협약 체결
- 2002년 원자력검증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과학기술부 제20021264호)
- 2003년 원자력검증센터 부설 내진시험실 완공
- 2005년 원자력기기 검정기관 인정 (한국원자력기기검증협회 KNEQA-2003001)
- 2009년 (주)새한검증에서 (주)새한티이피로 사명 변경

참고 원자력성능검증과 그 필요성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발전소가 정상운전 중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방사선이 새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방사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 설계를 바탕으로 각종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상운전 중이나 사고 발생시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상 상태가 되면 원자로 보호시스템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을 '불시정지' 라고 말하며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원자로는 정지 상태가 되면 핵분열이 중지되어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성 기기들이, 지진이나 방사선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사고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기기 성능검증이다.

따라서 원자력 기기 성능검증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며,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자국의 실정에 따라 정부의 위임 기관이나 중립적인 민간검증 기관을 활용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있다.